

“도민께 희망·자신감 갖는 계기”

김관영 도지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관련
간부회의서 “예산사업 하나라도 더”... 기재부 설득 총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간부회의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아전회의(의혹) 방식으로 열었다. 그는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우리도 반영상황 점검과 예산확보 전략 재정비를 지시하는 한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전북 유치로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자신감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관영 지사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성공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성과는 전북경제 성장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며, 특히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북 공무원들에게 더 담대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는 체념을 넘어 이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성과임을 강조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긍지와 기세를 살리고 또한 새만금이 미래창당 성장의 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냉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국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전체 실국장들과 함께 대응전략을 숙의하며, 맞춤형 예산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사인 본인부터 국가예산 확보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서 기재부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음주는 사실상 기재부의 정부예산 편성 단계 마지막인 만큼 국회 심의 전에 우리도 주요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요사업은 기재부 심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쟁점사업 확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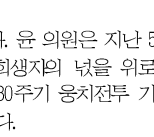
다. 전 실국이 소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울코트프레스(전면강압수비)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 반영된 주요사업은 3차 심의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신속히 대응할 것과, 소액사업의 경우에도 실무자의 재량에 있는 만큼 심의시 1개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사무관·과장 등 실무진까지 적극 소통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책사업 발굴, 추경예산 신속집행, 신산업 인재양성 방안 마련, 반려견 물림 사고 예방방안,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 확대운영, 물가상승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시적 확대지원대책 등 현안에 대해 중점토의 또한 이뤄졌다. /김경수 기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위해

윤수봉 도의원, 현지 답사 등 적극 행보 나서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안주, 더불어민주당)이 웅치전 적지 국가사적 지정 위해 현지 답사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웅치전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430주기 웅치전투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전북도·군의회 안주경 칠서장 예비군훈련대대장, 기관단체장,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읍면대표, 유족대표, 소양면 주민 등이 참석 웅치전투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로 지역 내에서는 유서 깊은 자리이다. /김경수 기자

웅치전투는 1502년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며, 곡창인 호남을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웅치전적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및 발굴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지난해 9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7월 법위와 토지 매입 논란, 지역 특정 등의 의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이에 도는 전투면적 축소 및 역사적 사료 등을 보강해 재도전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쁘고 있고, 국가문화재 지정은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다누리 목표 궤적 진입 성공

다누리 태양전지판 전개대 전력 생산 개시
4.5개월 동안 최대 9회 궤적 수정 후 달 접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달 전이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정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5일 오전 8시 8분 48초(미국 동부시간 4일 19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 에서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달로 향했다. 이어 발사 2분 42초 이후에는 발사체 1·2단 분리가 발사 3분 8초 후에는 페어링 분리가 진행됐다. 발사 40분 15초에는 다누리가 발사체에서 완전히 분리돼 우주 공간에 띄워졌다. 발사 1시간 32분 후인 오전 9시 40분에는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통해 지상국과 첫 교신도 이뤄졌다. 이어 항우연은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도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달도형 달 전이 방식’(BLT)의 궤적에 진입한 것을 오후 2시에 확인했다. 다누리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달을 향한 직선거리(38만4000km·대략 3일 소요) 대신 태양 지구, 달 등의 중력이 균형을 이뤄 무중력에 가까운 라그랑주 포인트 L1(150만km)까지 간 뒤 속도를 줄여 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후 달 궤적에 잡혀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BLT 방식을 선택했다. BLT에 진입한 다누리는 태양전지판, 안테나 전개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작동 및 점검을 수행하고, 약 4.5개월 동안

최대 9회의 궤적 수정을 수행해 계획한 궤적을 따라 달에 접근할 예정이다. 발사일(2022년 7월 31일~9월 9일)과 무관하게 오는 12월 18일 달 궤도에 포획되고 같은 달 31일에는 달 상공 100km의 임무궤도에 안착한다는 목표다.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한 후에는 하루 12회 공전하며 1년간(2023년 1~12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항우연은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돼 전력생산에 시작했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께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파기정정부 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달 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파기정정부 장관은 발사 현지 인터뷰에서 “지구 중력을 처음으로 벗어나 달로 향하는 다누리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역사의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지난 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대한민국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탑재한 스페이스 X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의사 수부터 늘리고 의료 개혁 계기로”

이용호 의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대한 애도의 표현과 의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며 “대형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관에 연줄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은 의사가 지킨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일선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확충 등 의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뇌혈관 수술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 의사가 기피한다”며 의료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가슴 아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

중요 방역시설 설치 지원 확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양돈 농가 방역시설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65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10월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발견된 감염 야생멧돼지는 백두대간을 타고 계속 남하해 올해 3월 23일 무주군에서 31km 떨어진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발견됐다. 이는 야생멧돼지의 월령균이 동거리가 3~5km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7~8개월 빨라 양돈농가와 방

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북도는 중요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 90억원도 추경으로 확보해 총 137억원(당초 47억원)을 양돈농가 500호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5,000만원이다. 지원되는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장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유입방지를 위해 삼성포화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야생멧돼지 21,000두를 포획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염된 개체는 없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획과 감염 여부 확인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없는 청정 전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연구원, 기업유치 등 연구과제 도민 공모 진행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한 도정지원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전북도민의 지혜를 모은다’ 전북연구원은 도민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해 제10회 연구과제 도민 공모를 7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기업유치, 민생경제, 농생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8월 12일까지 이메일(ida@jitrk.kr)로 접

수하면 된다. 공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심사결과는 8월중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결과 우수 연구과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시상하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063-280-7143)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남 원장은 “새로운 민선8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광복 77주년... 한반도 평화정착 기원’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2
전북도 통일대장정 개최



광복 77주년 기념, 세계 160개국 동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기원하는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전북도 통일대장정 10주년’ 행사가 지난 5일 오후 전북도청 광장과 전주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김종훈 정무부시와 송광석 피스로드 2022 한국 통일위원장, 이강안 광복회전북지부장, 세계연합총주단(통일팀) 20여명을 비롯한 각계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2022 전라북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회장 이근재)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회장 정병수)

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 및 기관 43개 단체가 후원단체로 참여했다. 제1부 기념식은 운영부 실행위원(원광대학교수)의 사회로 하나로남북 예술단의 공연에 이어 배너시사회, 정병수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의 내빈 소개 및 환영사, 세계연합총주단 환영, 이근재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의

대회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김종훈 정무부지사 대우) 이강안 광복회전북지부장의 축사, 송광석 한국실행위원장의 격려사, 종주기원담, 김종영 실행위원의 평화메시지낭독, 통일의 노래합창, 이현준 실행위원의 만세삼창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 라이딩에서는 세계연합총주단 20여명과 전북지정가타기운동본부 회원 30여명등 50여명이 신통일한국 기원 깃발등을 끌고 전북도청광장에서 정문쪽으로 출발해 홍산교, 통일광장 사거리, 백제교를 거쳐 전주종합경기장 청소년광장까지 5km를 종주한 뒤, 종료식을 갖고 해산했다. 이근재 공동실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무더운 여름, 바쁜심에도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전라북도 통일대장정’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각계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피스로드 실행위는 한반도의 분단장벽을 걷어내자는 의미로 ‘신평화론’라는 명의로도명을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피스로드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시대, 지구촌 평화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송광석 한국실행위원장은 “올해 10회를 맞는 피스로드에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으며, 지난 7월 27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피스로드를 개최하는 등 세계 160개국에서 동참하는 글로벌 평화운동으로 확산되어, 오늘 전북도 피스로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한편, 전북지회는 이날 피스로드 행사를 시작으로 6일 임실군, 7일 군산시, 13일 순창군, 17일 진안군, 21일 익산시 등 10여개 시군에서 8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